

“현장 종사자 회복이 촘촘한 복지 출발점”

전남가족센터협 ‘숨쉬툼 라운지’ 운영

권역별 진행...중부권 100명 성료
내달 동부·서부권 각 100명씩 예정
AI 교육·힐링 프로그램·소통 호응

“타인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충분히 쉬고 회복할 때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망도 한층 더 촘촘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전남가족센터협회는 지난달 여수 오션호텔에서 강진·나주·담양 등 중부권 복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종사자 소진 예방 워크숍 숨쉬툼 에코라운지’ 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8일 전남가족센터협회에 따르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 ‘센터 종사자 소진 예방 워크숍 숨쉬툼 에코라운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번아웃 극복을 돕고 있다.

‘숨쉬툼 에코라운지’는 바쁜 업무 가운데



전남가족센터협회는 지난달 여수 오션호텔에서 강진·나주·담양 등 중부권 복지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종사자 소진 예방 워크숍 숨쉬툼 에코라운지’ 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남가족센터협회 제공)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쉼을 통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중부권(강진·나주·담양 등)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1차 위

크숍이 여수 오션호텔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다음 달 11일부터 양일간 동부권(고흥·구례·곡성 등) 종사자를 위한 2차 일정, 같은 달 18일부터 이틀간 서부권(목포·무안·신안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워크숍이 각각 10

0여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20여명 내외로 밀도 있게 구성해 소통의 깊이를 더한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실무자들의 고충을 털어주는 데 집중했으며, ‘나를 위한 AI 비서 활용하기’ 교육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종사자들이 반복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 회복 힐링 프로그램과 소통 라운지 등을 더해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했다.

이밖에 프로그램 내 ‘소통 라운지’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가족센터 운영과 서비스 발전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정문 전남가족센터협회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종사자의 건강과 회복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뿌리”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얻은 성과 재충전의 에너지가 다시 이웃을 향해 힘차게 뿜어질 수 있는 따뜻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전남여성상 학생들, 故 박금희 열사 추념식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고(故) 박금희 열사 추념식을 개최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여성 3학년 재학 중이었던 박 열사는 투쟁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을 마치고 귀가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희생됐다.

전남여성상은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오월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자 매년 5월 추념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추념식은 전교생과 최규명 교장 등이 참석해 박 열사 순의비에 헌화와 묵념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최규명 교장은 “전남여성상은 학생들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추념식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경찰청,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

전남경찰청은 18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남경찰청 ‘안병하 공원’에서 5·18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장을 비롯한 전남경찰 지휘부와 순직 경찰관 유족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추도식에서는 5·18 당시 시민 보호와 경찰 명예를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들의 넋을 기렸다.

고(故) 안병하 차안감과 고(故) 이준규 경무관은 당시 전남경찰국장과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 생명 보호에 힘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함평경찰서 소속 고(故) 정충길 경사와 고(故) 이세홍 경장, 고(故) 박기웅 경장, 고(故) 강정용 경장도 5·18 당시 시위 현장에서 시민 보호 활동을 하다 순직했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순직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받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5기 리더 초청 팸투어

전남도는 18일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5기 리더 15명을 초청해 목포 일원에서 관광·할인

가맹점 등 혜택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5기 리더는 지난 3·4월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됐다. 블로그 5명과 영상 10명 등 SNS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인플루언서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전남의 관광·문화 자원과 서포터즈 가입 혜택, 할인가맹점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팸투어는 서포터즈 할인 가맹점인 목포해상케이블카, 해상 요트 투어, 공방 체험 등 목포의

주요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포터즈 리더들은 할인가맹점에서 ‘전남사랑애’ 할인 혜택을 체험하며 서포터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형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했다.

박주환 전남도 고항사랑과장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5기 리더들이 참신한 콘텐츠와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 전남의 관광·문화·미식 등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며 “이들이 전남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 촌담 참숯불꾸이꾸이, 취약계층 닭곰탕 전달

담양군 담양읍은 “최근 촌담 참숯불꾸이꾸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닭곰탕 20인분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기탁된 물품은 백동주공2단지 취약계층 20세대에 전달됐다.

윤기동 대표는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중화 담양읍장은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



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담양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동강대 총학생회,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

동강대 총학생회가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를 위한 생명 사랑 실천에 따뜻한 마음을 내었다.

18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최근 교내 학생회관 앞에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신청서 작성, 채혈 과정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동강대 학생종합지원팀과 장애 다문화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도 함께 했으며, 방사선학과와 간호학과 RCY동아리 등 보건 계열 학생들이 참여해 예비 보건 의료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기증된 신청서와 채혈 혈액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포은행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성범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생명 존중 가치를 세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종자관리소·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합동 워크숍

전남도종자관리소는 “최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합동 워크숍을 열어 종자 생산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워크숍에선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종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종자 확보와 품질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벼·콩·맥류 우량종자 생산관리, 원종 생산 수급 및 운송 개선사항, 종자 품위 향상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상대 기관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에서 종자 생산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 재종단지,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 전남도종자관리소장은 “이상기후로 종자 생산 현장에서도 고온, 집중호우, 병해충 증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 전 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목포 한마음푸드, 취약계층 컵라면 후원

목포시 삼향동은 “최근 한마음푸드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컵라면 47박스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삼향동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기병도 대표는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을 함께하고자 후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민 삼향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한마음푸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후원 물품은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마음푸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여대, 완도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미용과학과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양치유·웰니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부미용 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진로와 취업 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현장 체험과 졸업생 멘토링을 함께 운영해 학생들의 실무 이해도와 취업 역량을 강화했다.

학생들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주요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해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 현장을 경험했다.

김선형 학과장은 “이번 현장 체험은 학생들이 해양치유 및 웰니스 산업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전남 중학생들 ‘평화 인권 역사 체험 캠프’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지난 14·16일 2박 3일간 도내 중학교 38개교 3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1기 중학생 평화·인권·역사 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전남 의(義) 교육’의 하나로 제주 4·3과 여순 10·19의 현장을 찾아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제주 4·3평화공원과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에서 4·3 생존자인 고완순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당시의 아픔을 마주했다. 이어 제주항일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4·3이 나에게 건넨 말’의 저자 한상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와 기억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또한 동광마을과 앞뜨르비행장, 서일모습 학살터, 무명천 할머니 집터, 영모원 등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근 원장은 “앞으로도 교실 밖 체험형 역사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